

북한판 『민요삼천리 2』의 구성체계와 내용에 관한 고찰*

이형환**, 전성희***

-
1. 서론
 2. 구성체계
 3. 지역별 민요의 내용분석
 4. 『민요삼천리』 2권을 마치면서
 5. [특집] 부분 내용분석
 6. [부록] 부분 악보 분석
 7. 결론
-

1. 서론

민요(民謠)는 어떤 민족이 살아온 삶의 모습과 과정이 노래의 형태로 표출되고 정착된 것을 말한다.¹⁾ 이러한 민요는 구비전승(口碑傳承)되는 특징을 갖는다. 민요는 부르는 사람들에 의하여 두 갈래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전문적인 소리꾼이나 집단에 의해 널리 퍼져 불리어지는 민요는 통속민요(通俗民謠)라 말하고, 한 지역에 한정되어 비전문가들에

* 이 논문은 2015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주저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 교수

*** 공동저자,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학 박사과정 수료

1) 김해숙 외 2인(1995), 『전통음악개론』, 도서출판어울림, 160쪽.

의해 불리어지고 그 지역에서 보편성을 갖는 민요를 토속민요(土俗民謠)라 칭한다.

한국의 민요는 지역의 방언이나 사투리 같이 독특한 민요 토리를 갖는다. 그리고 현재 이들 토리를 중심으로 5개 민요권으로 구분한다. 즉 서울·경기·충청지역의 경기민요권, 황해도·평안도·함경도 지역의 서도민요권, 전라도 지역의 남도민요권, 경상도·강원도 지역의 동부민요권, 제주도지역의 제주민요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의 민요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남한 지역의 경기민요권, 남도민요권, 동부민요권의 민요를 중심으로 노래나 사설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남한의 민요 관련 학자들 중심의 연구 성과물과 남한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연주가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북한 지역 민요와 관련된 연구 성과물로는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한 내용으로 북한의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에서 1954년에서 1956년까지 발행한 『조선민요곡집』제1~8집과 1958년에서 1960년까지 발행한 『조선민요곡집(연구자료)』제1~3집, 그리고 1979년에서 1988년까지 북한의 문예출판사에서 발행한 『민요연구자료집』에 대하여 내용과 분류를 요약 정리한 연구가 있을 뿐 이다.²⁾ 이러한 현상은 분단된 국가인 우리나라 상황에선 북한지역 민요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북한의 민요학자들의 관점에서 서술된 연구 성과물과 그에 따른 내용들과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민요연주가들에 대한 활동상황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0년 평양출판사에서 출판된 최창호 저 『민요삼천리 1』을 증보 재판하여 2003년 출간한 『민요삼천리 2』³⁾는 북한 민요학자의 학문적 관점과 내용, 그리고 남한 지역에

2) 황준연·신대철·권도희·성기련(2002), 『북한의 전통음악』, 서울대학교출판부, 61-72쪽.

3) 최창호(2003), 『민요삼천리 2』, 평양출판사.

서는 알려지지 않은 북한 전통음악 연주가들의 활동상황에 대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남·북한의 균형감 있는 연구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출간된 『민요삼천리 2』의 구성체계와 수록 내용을 고찰하여 북한 학자의 민요에 대한 관점과 북한지역의 민요의 현황, 그리고 연주가들에 관한 분석과 함께 남·북한 민요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2. 구성체계

최창호 저 『민요삼천리 2』의 구성체계는 우리나라 전 지역의 민요에 대한 소개와 대표적인 민요의 특징을 경기도·충청도·전라도·영남·제주도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민요삼천리 2』 제작 후기와 〈특집〉으로 서도·남도민요 명창, 이름난 민족음악연주가, 민족음악 공헌자, 민요와 현대조선민족무용, 민간의 명고수와 명무가들 등으로 분류하여 전통음악과 무용 연주자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또한 부록 부분에서는 서양 오선보로 채보된 각 지역의 41곡의 민요가 수록되어 있다. 사진소개 부분에서는 모란봉, 대성산 유원지, 모란봉청년공원 등에서 북한 주민들의 연주 행위와 놀이 사진들을 게재하고 있으며, 관서팔경의 하나인 련광정, 평양팔경의 하나인 부벽완월, 관동팔경의 하나인 총석정의 풍경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민요삼천리 2』 구성체계

번호	제목	세부제목
1	경기도의 민요들을 더듬어	‘노랫가락과 창부타령(광대가)’, ‘강타령과 경북궁타령’, ‘매화타령과 닐리리야’, ‘이팔청춘가와 사발가’
2	충청도 민요에 대한 소감	-
3	전라도 민요들을 더듬어	‘남원땅의 옛 노래’, ‘전라도의 판소리’, ‘가단가요의 하나인 새타령’, ‘호남지방의 토속민요’
4	령남지역의 뿌리깊은 민요	‘메나리와 밀양아리랑’, ‘영천아리랑과 꿰지나칭칭 나네’, ‘옹헤야와 정애요’
5	제주도의 옛 노래들을 더듬어	-
6	『민요삼천리』 2권을 마치면서	-
7	특집	‘서도민요의 명창들’, ‘남도민요의 명창들’, ‘이름난 민족음악연주가들’, ‘민족음악의 공헌자들’, ‘민요와 현대조선민족무용’, ‘민간의 명고수와 명무가들’
8	부록	악보
9	사진소개	사진소개

3. 지역별 민요의 내용분석

3.1. 경기도의 민요들을 더듬어

3.1.1. 노랫가락과 창부타령

경기민요 노랫가락의 명창들로 장경순, 박부용, 조모란 등을 소개하고 이들이 1930년대 음반을 남겨 후학들의 범창(範唱)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노랫가락의 사설 내용을 애국적인 내용, 남녀 간의 연정적인 내용, 이별의 내용 등 세 가지로 구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권선징악(勸善懲惡)과 노동생활을 주제로 하는 내용들도 있다고 소개하

고 있다. 특히 애국적인 내용은 성삼문의 시 “이 몸이 죽고 죽어, 무엇이 될 고 하니”, 남이 장군의 시 “두산석은 마도진이요”, 사육신의 한사람이었던 리개의 시 “창안에 췌난 초불 누구와 이별 하였관대” 등의 시들을 사례로 들고 있다. 또한 노랫가락이 18세기 후반기에 가곡과 시조에 뿌리를 두고 생겨났고, 무가에서 노랫가락이 발생하였다는 기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며, 그 예로 노랫가락이 가곡과 시조의 시형과 음조 등이 유사하기 때문에 기존의 무가기원설을 부정하고 있다.

창부타령에 대해서는 원래 “광대가”였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남자 광대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여 창부(倡夫)타령이라고 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창부타령을 남자가 부르는 창부(倡夫)타령과 여자들이 부르는 창부(娼婦)타령으로 구분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창부타령은 무가에서 불리어 오던 것이 일반 대중에게 흘러들어 일반화되었다는 기존의 주장 대신에 사당패의 노래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어 기존의 기원설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북의 노랫가락과 창부타령의 기원에 대한 견해가 상이하기 때문에 향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3.1.2. 강타령과 경북궁타령

강타령은 반굿거리 장단을 사용하며 다른 이름으로 한강수타령, 오강(五江)타령, 오호(五湖)타령으로 선율이 시원감을 주면서 춤가락이 흘러나오는 흥겨운 민요이며, 우리나라 5대강인 압록강, 청천강, 한강, 대동강, 낙동강을 노래하고 있어 경기도민요이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불리워질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고 있다. 경북궁타령은 대원군의 경복궁 개축에 동원된 농민들이 대원군을 원망하면서 풍자적인 가락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선조들의 노동생활과 인정태세(人情世態)를 반영하여 부르기도 한다고 하고 있다.

3.1.3. 매화타령과 닐리리아

‘종구나 매화로다. 에야 데야 에헤야’로 시작하는 매화타령은 전국적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여성들의 애창곡이며 가무곡으로 경기도 지방 여인들 속에서 창작된 토속민요이지만 현재는 전국적으로 가창되고 있고, 특히 황해도와 평안도 등의 서도 지방에서 애창되고 있는 곡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 지역에서는 다른 민요에 비해 많이 애창되지 않는 민요로 서도지방에서 많이 애창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다 하겠다. 닐리리아는 지역에 따라 가사가 상이하고 선율도 차이가 있으나, 사설의 주제가 자신에 대한 탄식과 남녀 간의 연정과 이별을 중심 주제로 하고 있다. 닐리리아는 애련한 선율 진행을 갖지만 “닐리리”도 있는데 그것은 “닐리리타령”이라고 하고 흥겹게 부른다고 하고 있어, 남한에 없는 “닐리리”에 관해선 연구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3.1.4. 이팔청춘가와 사발가

‘이팔은 청춘에’로 시작하는 “이팔청춘가”는 1900년에 편작된 곡으로 원래 “청춘가”였는데 후에 “이팔청춘가”로 개명되었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허송세월 하지 말고 학문을 닦아야 한다는 계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청춘가”로 부르고 있는 민요이다. ‘신식 쌍발 메구서, 으시대지 말아라, 화승대를 가지고도’로 시작하는 “사발가”는 경기도 지방 포수들의 노래인 “수렵가”로 불리워지다가 후에 군사들도 부르게 되어 “발사가”란 곡명이 붙기도 하였다. 일제 강점기 이후 의병들이 부르면서 일본군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글자 순서를 변경하여 “사발가”로 곡명을 고쳤다고 하고 있다. “사발가”는 일제 강점기시대에 중국 접경지대인 백두산지구,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에서 많이 불리워졌고, “사발야 양푼아, 이집 저집 돌아라”라는 가사는 일제시대 관

북지방에서는 사발에다 된장이나 감자떡을 담아서 집집마다 돌렸는데 이것은 반일집회가 있으니 모이라는 신호였다고 한다. 또한 낫양푼에 나물볶음이나 산나물 같은 것을 담아서 돌리면 남자들만 모이라는 신호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사발가”는 함경북도와 양강도 일대에서 애창되었고 반일투쟁에 나선 의병들도 불렀다고 한다.

3.2. 충청도 민요에 대한 소감

『민요삼천리2』에서 충청도 민요와 관련되어서는 민요명창이나 민요 곡들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고 있다. 다만 충청도 지역에는 전해오는 토속민요가 별로 없으며 일제 강점기 시대의 “낙화삼천”, “백마강 달밤” 등 대중가요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충청도 지역의 대표적인 민요로 “천안삼거리”를 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나 “천안삼거리”는 충청도 민요라고 하기보다는 경기도 지역의 “홍타령”에서 유래된 견해가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천안삼거리” 가사에 ‘천안삼거리 흥, 능수나 버들은’같은 시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으며, 노래의 기원은 알 수 없고 ‘능수’라는 기생이 노래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고 하고 있다.

3.3. 전라도 민요들을 더듬어

3.3.1. 남원땅의 옛 노래

『민요삼천리2』에서 남원지역의 대표적인 소리로 판소리 “춘향가”를 소개하고 있다. “춘향가”는 호남지방 전 지역에서 애창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1930년대 초 임방울, 리화중선, 박녹주의 노래로 <빅타>레코드에서 취입한 ‘사랑가’, ‘광학루’, ‘그네를 뛰다’, ‘단방독서’, ‘백년가약’, ‘춘향리별’, ‘오리정리별’, ‘신정맞이’, ‘기생점고’, ‘신관 춘향을 부름’, ‘형

장, ‘춘향하옥’, ‘옥중장탄’, ‘리도령 과거장’, ‘어사 남원으로’, ‘긴 농부가’, ‘작은 농부가’ 등의 곡을 소개하고 있다. ‘춘향리별가’는 독자적인 민요처럼 사람들이 애창했으며, ‘옥중장탄’ 대목이 남원 농부들과 평민들의 원한을 담은 ‘원성가’로 불리기도 하였고, ‘농부가’는 전라도 지역에서 불리다가 지금은 전국적으로 애창되고 있는 농요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농부가’의 기원으로 농제(農祭), A.D 1세기 도솔가, 백제의 소리인 산유화에서 유래되었다는 견해가 있다고 하고 있다.

3.3.2. 전라도의 판소리

『민요삼천리2』에서 판소리에 대해서 원래 판소리는 남원이 고향이라고 하고 전라도 민요는 ‘육자백이’형의 노래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판소리의 본향(本鄉)이 남원이라는 주장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판소리 12마당인 ‘장끼타령’, ‘변강쇠타령’, ‘무숙이타령’, ‘배비장타령’, ‘심청전’, ‘흥부전’, ‘토끼전(수궁가)’, ‘춘향전’, ‘적벽가(화용도)’, ‘강릉매화가’, ‘숙영랑자전’, ‘웅고집타령’ 등의 곡목을 소개하고 있고, 그 중 가장 널리 불리워지는 판소리로 ‘춘향가’, ‘심청전’, ‘흥부전’, ‘토끼전(수궁가)’ 등 판소리 4마당을 소개하고 있으나, 남한의 경우 ‘적벽가’를 포함하여 판소리 5마당을 주요 판소리로 구분하고 있다.

『민요삼천리2』에서 현재 남한에서는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는 ‘장끼타령’에 대하여 사실과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차후에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장끼타령’의 내용은 장끼와 까투리 등 조류(鳥類)에 빗대어 인간의 정조(貞操)없음을 풍자한 소리로 송만재(宋晩載)의 관우희(觀優戲)에 전하는 판소리이다.⁴⁾ ‘장끼타령’은 민요인 ‘까투리타령’과는 차이가 있는 판소리라고 하고 있다.

4) 송방송(2012), 『한겨레음악대사전 下』, 보고사, 1555쪽.

3.3.3. 가단가요의 하나인 “새타령”

『민요삼천리2』에서 “새타령”은 전라도 지방에서 널리 불리워진 잡가의 하나로서 가단(歌團)에서 불리워진 오래된 민요로 소개하고 있다. 가단은 노래를 부르는 전문집단으로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노래 부르는 가창단체이다. 그리고 “새타령”은 “육자백이”형의 선율이지만 비교적 부르기 유순하여 전국적으로 불려지는 민요로 소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토끼타령”, “날개타령”, “화초사거리” 등도 가단가요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현재 남한에서는 “화초사거리”, “보름”, “육자백이” 등을 남도민요 혹은 남도잡가로 구분하여 전문적인 창자들이 부르고 있으나, “토끼타령”, “날개타령” 등은 불리고 있지 않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3.4. 호남지방의 토속민요

『민요삼천리2』에서 호남지역의 토속민요로 가장 뿌리깊고 대중적인 민요로 “육자백이”를 소개하고 있다. “육자백이”는 “긴육자백이”와 “짧은육자백이”로 구분하고 있어 남한의 구분과 동일하다. 또한 전북 익산지역의 “비타령”을 소개하고 있는데 굿거리장단으로 연주하며, 소리뒤에 농악 삼채장단으로 끝을 맺는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민요 연주양식인 ‘멕이고 받는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익산지역에서 불리워지다가 전라도 전역에서 부르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민요는 현재 남한에서는 불리워지지 않는 민요로 사료되며 사설은 ‘아-아아 이-이이, 헤-헤 헤이 헤이에 얼씨구 비가 온다, 어디를 갔다 이제 오나, 옥중 춘향이 뉘 만난 듯, 칠년 가물에 단비로세 …(중략)… 얼씨구나 절씨구 여차’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도 판소리를 부르기 전에 노래하는 짧은소리인 “단가” 15곡, “진도아리랑”, “강강수월래”, “화초가” 등을 소개하고 있다.

3.4 령남지방의 뿌리깊은 민요

3.4.1. 메나리와 밀양아리랑

『민요삼천리2』에서 제시하고 있는 “메나리”는 백제의 옛 가락인 “산유화”에 근원을 두고 보완되어온 가락이며, 오늘에 와서 본래의 가락은 찾아보기 힘들고 농업노동과 농요로서 선율만이 전한다고 하고 있다. “메나리”는 길게 노래하면 구슬프게 들리고 착취사회에서 억눌려 살아 온 선조들의 한(恨)이 서려있는 노래로 소개 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경상도 민요로 “산유화가”, “어사용”, “얼사영”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고, 메나리조 형식으로 노래하며 경북 선산과 충남 예산지방에서 채집된 가사가 있다.⁵⁾ 그러나 『민요삼천리2』에서 제시하고 있는 “메나리”민요의 사설 ‘이산 저 산 진달래야, 꽃 진다고 서러워 말아, 산도 살고 물도 설은데 우리 고향을 언제 갈가’와 남한에서 채집된 ‘메나리 꽃아 메나리 꽃아, 저 꽃이 피어 농사일 시작하여’와는 사설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4.2. 영천아리랑과 쾌지나 칭칭나네

『민요삼천리2』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천아리랑”은 경상도 지방의 대표적인 민요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영천아리랑”은 일제의 혹독한 탄압을 피해 중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향수에 젖어 부르던 노래로 영천 지역에서 불렸지만 곧 사라지고, 만주, 중앙아시아, 연변 등지로 옮겨 살면서 노랫말과 곡조가 널리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는 1993년 연변대학의 박창욱 교수가 소개한 이후 북한 전역에 퍼졌다고 한다.⁶⁾

“쾌지나칭칭나네”는 애국민요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 노래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조국 땅을 침략하였던 ‘왜장청정’과 오랑캐 침략자들에 대

5) 송방송, 위의 책(上), 598쪽.

6) <http://yeongcheon.grandculture.net>

한 항거와 풍자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고 있다.

“꽤지나칭칭나네”는 가창에 능숙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여러 사람이 후렴을 받아 부르며 춤을 추는 원무곡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3.4.3. 웅헤야와 정애요

『민요삼천리2』에서 제시하고 있는 “웅헤야”는 농요이며 대중적인 무용곡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민요는 농민들이 보리타작을 하는 즐거움을 사설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전국적으로 애창되는 가락으로서 군중무용곡의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군중무용곡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민요삼천리2』에서 ‘웅헤야’의 어원을 ‘아 야-’, ‘아으’, ‘어라-’ 등의 감탄구가 변하여 ‘웅헤야’로 되었다는 견해와 ‘에루화’, ‘에헤야-’, ‘어허야’, ‘어야흥’, ‘에헤야 딱딱’ 등의 조흥구가 변하여 ‘웅헤야’가 되었다는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지역에서는 ‘웅헤야’는 ‘올헤야’가 변해서 된 말이고 후렴구인 ‘헤헤헤헤’는 올해의 ‘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으로 되어있다.⁷⁾ 양쪽의 견해가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정애요(情愛謠)”는 한산도, 옥지도, 거제도 등지에서 전해온다고 하며 가사의 내용은 ‘저 건너라 미나리길에, 미나리 캐는 저 처녀야, 너는 종종 미나리 캐나, 나는 종종 풀만 빈다’ 등 소박한 생활상과 연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애요”의 기원은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다.

3.5. 제주도의 옛 노래들을 더듬어

『민요삼천리2』에서 제주도의 민요로 제시하고 있는 “한나산 노래”는 북한의 제주도 출신을 통해서 채집한 민요이며, 제주도는 옛날에 지명이

7) <http://100.daum.net/encyclopedia/>

영주(瀛州)로 한라산도 영주산이라고 하고 있다. “한나산 노래” 사설은 ‘한나산 상상봉, 높고도 높은 봉, 이야옹 백록담, 이야옹이라, 고랑부 삼 성이, 나오신 곳은, 이야옹 삼성혈이라’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노래의 제목은 한라산을 노래하고 있지만 한라산의 아름다운 산세와 지형을 노래하고 있지는 않음을 애석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야옹 이야옹’과 같은 조흥구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역사가 오래된 민요라고 하고 있다.

“오돌독”의 사용 장단은 굿거리와 중모리 장단을 사용하며 가사에서 춘향전의 사설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창작되어진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 또한 후렴구의 ‘둥그데 당실 둥그데 당실’이라는 시어는 원래 ‘동기대 당실(童妓大 當室)’로 ‘어린 기생이 성장 하면 아내로 삼을 만하다’라는 뜻으로 해석 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해석보다는 가락에 사용되는 후렴구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있다.

“달거리”는 일명 월령가(月令歌)⁸⁾로 정월달부터 선달까지 일년 열두 달을 차례로 노래하는 형식이다. 민요 “달거리”의 사용 박자는 8/6박자로 선율의 진행은 유순한 진행을 하고 사설의 내용은 다른 지역의 “달거리” 사설과 상이하게 순수한 생활적인 어휘를 중심으로 엮어진 형태라고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야홍 타령”과 “제주도타령” 등이 존재하며 “제주도 타령”의 사설은 ‘호박은 늙을수록 맛이 나 있구요, 사람은 늙을수록 보기가 싫어요, 너냐 나냐 두리둥실 놀고요 낮이 낮이나 밤이 밤이나, 참 사랑이로구나’ 등으로 되어 있어 제주도 민요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8) 장사훈(1984), 『국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564쪽.

4. 『민요삼천리』 2권을 마치면서

저자 최창호는 함경북도에서 제주까지 민요의 삼천리를 이어 왔고, 관서지방의 “안주애원곡”, “꽃타령” 등과 경기도의 12잡가, 전라도 지역의 일부 토속민요 등을 소개하지 못함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신민요에 대한 개념정의와 최초 작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민요삼천리』 2권을 마치면서를 기술하고 있다. 본문에서 저자 최창호는 신민요는 ‘민족음악에 바탕을 두고 현대적 미감이 나게 새롭게 창작한 민요’를 신민요라고 정의 하고 있다. 또한 신민요의 시작과 첫 작품을 문호월 작곡의 “노들강변”이 <오케이>레코드에서 취입한 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19세기 말 이후 일반사람과 잡가 담당층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민요풍의 노래 전반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일제 강점기 이후 특정인의 작곡과 작사를 통해 만들어진 민요풍의 대중가요를 지칭한다. 즉 넓은 의미의 신민요는 개화기 이후 창작된 민요 전반을 포함하며 “경복궁타령”, “천안삼거리”, “신고산타령”, “청춘가” 등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신민요는 일제강점기 유성기 음반에 취입한 민요양식의 대중가요와 그 이후 만들어진 민요풍의 대중가요를 지칭한다.⁹⁾ 이와 같이 남·북한의 신민요에 관한 정의와 시초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향후 신민요에 관한 남·북의 학문적 의견 교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특집] 부분 내용분석

『민요삼천리』 2권 말미에 구성된 특집 부분은 ‘서도민요의 명창들’,

9) <http://100.daum.net/encyclopedia/>

‘남도민요의 명창들’, ‘이름난 민족음악연주가’, ‘민족음악의 공헌자들’, ‘민요와 현대조선민족무용’, ‘민간의 명고수와 명무가들’ 등 6가지의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특집부분에서는 기존에 남한에 알려져 있는 연주가들과 탈북음악인들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들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5.1. 서도민요의 명창들

『민요삼천리2』의 서도민요 명창들은 남자 명창 4명, 여성 명창 12명 등 총 16명을 소개하고 있다. 남성 명창 최순경은 1930년대 초 수심가, 엮음수심가, 난봉가, 노랫가락, 배따라기, 배뱅이굿, 산타령계열의 서도민요에 특기를 보였고, 김진명은 황남 청단군 화양리 출생으로 신봉익으로부터 가곡, 가사, 시조, 수심가를 사사하였다. 천구성과 수리성이 배합된 뛰어난 가창력을 소유한 명창으로 18살 되던 해 동아일보 주최 경연대회에서 1등으로 당선되었다. 빅타 레코드사에서 서도민요를 취입하였고, 인민배우로 활약하였다. 김윤식은 광복 후 민족예술극장, 철도성예술극장에서 민요 독창 가수와 강사로 활동하였고 김종조와 김칠성에게 사사한 관서지방의 명창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장타령” 중 “평양팔경가”, “코타령”, “물감타령” 등이 특기이다. 장재천은 황해북도 봉산군 출생으로 박창선과 김영환에게 사사하였고, 1848년 7월에 협률단이라는 예술단체에서 활동하며 민요극 “배뱅이굿”에서 주인공으로 활동하였다. 1950년 조선인민군협주단에 입단하였고 민족가극 “녀성혁명가” 외에 수십 편의 가요를 작곡하였다. 1968년 공훈배우로 활동하였다.

여성 명창 장학선은 생물연대가 미상으로 1930년대 초 문명옥과 수심가, 양산도, 노랫가락, 창부타령 등 경·서도 민요에 특기가 있었으며, 얼굴이 길기 때문에 오면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것으로 보아 장학선은 예명

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의 자료에 의하면 장학선의 본명은 장현길(張賢吉)로 1906~1970 또는 1907~1971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남한에서 1969년 “수심가”와 “관산용마”로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¹⁰⁾ 왕수복은 본명이 왕성실로 평양시 출생으로 1928년경 평양가무학교에 입학하여 가사, 시조, 서도민요를 수학하였고 졸업 후 이 학교 조교수로 근무하였다. 전래민요들을 취입하였으며 1930년대 중엽 일본으로 건너가 현대음악 발성체계를 공부하고 1942년 귀국하였다. 이후 많은 전래민요들과 신민요, 대중가요를 불렀다. 선우일선은 본명이 최창선(崔昌善 또는 昌仙)으로 1934년 포리돌 레코드에 신민요 “꽃을 잡고” 취입 후 알약 명가수로 알려지게 되었고, 신민요를 많이 취입하였으며 전래민요들도 많이 불렀다. 광복 후 평양음악대학 성악학부 교원으로 활동하였다. 김관보는 평남 성천군 대곡리 출생으로 어린시절부터 사공이었던 부친에게 노래를 배웠으며, 1938년 서울에서 열린 신춘명창발표회에서 1등을 차지하였다. 그는 전래민요를 많이 불렀으며 민족음악교육가로서 인민배우, 공훈배우로 활동하였다.

김인숙은 생몰연대를 알 수 없으며 1930년대 경기민요를 많이 불렀고 “사발가”와 “신이팔청춘가”를 직접 작사하여 불렀다. 홍탄실은 황해남도 신천군 출신으로 1930년에 신천음악학교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노래를 배웠으며, 가곡, 가사, 시조, 경서도 민요들을 불렀다. 1949년 국립예술극장 민요가수로 활동하였으며 1961년 공훈배우가 되었다. 강응경은 강원도 철원에서 출생하여 1952년 평양음악무용대학 민족학부에 입학, 졸업 후 조선민족고전예술극장 성악배우로 활동하였으며 수많은 민요들을 발굴 수집하여 정리하였고 “긴아리랑”, “영천아리랑”, “강원도아리랑” 등을 취입하였다. 김옥선은 1941년 평양에서 출생하였고, 평양음

10) 송방송, 위의 책(下), 1577-1578쪽.

악대학에 입학하여 체계적인 성악을 수학한 후 “춘향전”과 같은 민족가극의 주인공으로 활약하였다. 1975년에는 공훈배우, 1978년에는 인민배우가 되었다. 현재는 조선인민군협주단에서 후학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계춘이 1940년 평양출생으로 김윤식에게 사사하였고, 1956년 전국로동자예술축전에서 민요독창으로 1등 수상하였고, 민족예술극장, 중앙방송예술단, 철도부예술단에서 민요독창가수로 활약 하였다. 현재는 조선민족음악무용연구소 강사로 활동하며 후배양성을 하고 있다.

김춘옥은 평양가무학교에서 전통적인 서도민요를 수학하였고 1930년대 중엽 중국 베이징에서 조선인신춘명창대회에서 1등 수상하였다. 민족수난기에 창작된 대중가요에도 특기가 있었으며 전후에는 ‘민요가창대’를 조직하여 예술소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였다. 백모란의 생몰연대는 미상이며 1930년대 초 “창부타령”, “노랫가락”, “매타령” 등의 경기민요를 취입하였다. 리영산홍은 생몰연대는 미상이며 가곡, 가사, 시조에 특기가 있었다. 1930년대초 콜럼비아 레코드에서 “관산용마”를 취입하였고 이밖에도 경기민요와 경기 12잡가를 잘 불렀으며, 특히 “과부가”를 잘 불렀다고 한다.

5.2. 남도민요의 명창들

『민요삼천리2』의 남도민요의 명창들에서 출현하는 남성 명창은 7명, 여성 명창은 3명으로 총 10명의 남도민요 명창들을 소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명창들은 남한의 판소리 관련 자료에 나타나는 명창들이며, 박동실, 공기남, 림소향 명창들은 월북한 판소리 명창들로 구분 할 수 있다.

리동백은 1866년 경 충남 비인군에서 출생하였고 김종근과 김세종을 사사하였다. “조선성악연구회”를 조직하여 후배양성에 힘썼고 “심청가”와 전라도 민요인 “새타령”에 특기가 있었다. 송만갑은 전북 구례군 봉

북리에서 명창 송우룡의 맏아들로 출생하였다. 13세부터 명창으로 알려졌으며 전래 창법을 현대적으로 다듬어나가면서 “가창가는 세단포목삼(비단과 무명장사)과 같아서 비단을 달라는 이에게는 비단을 주고 무명을 달라는 이에게는 무명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여 노래를 불러도 대상의 요구에 맞게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원각사에서 국창 김창환과 함께 “춘향전”, “심청전” 등을 창극으로 만들어 우리나라 창극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한다.

박동실은 전남 담양군에서 출생하여 외할아버지와 명창 김계관에게 사사하였고 16살 때 원각사에서 창극 “춘향전” 주연으로 활약하였다. 광복 이후 북한으로 이주하여 조선고전음악연구소, 국립고전예술극장의 창극 배우와 민족성악 강사로 후배 양성에 힘썼다. 1956년 공훈배우, 1961년 인민배우로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고 활동하였다. 김창룡은 1872년 충남 서천군에서 출생하였고 7세부터 판소리를 공부하였으며 리날치에게 1년간 수학하고 1904년경 서울에서 “연흥사” 창립과 “조선성악연구회”에서 활동하였다.

정정렬은 1876년경 전라북도 익산군 내촌리에서 출생하였고 정창업과 리날치에게 사사하였다.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 등과 함께 “조선성악연구회”를 조직하고 활동하였으며 ‘빅타레코드사’에서 창극 “춘향전”, “심청전”을 취입하였다. 이화중선은 1898년 경남 부산에서 출생하였고 서울로 상경 한 후 ‘빅타레코드사’에서 창극 “춘향전”을 정정렬, 림방울, 박록주, 김소희 등과 취입하였다. 이밖에도 “소상팔경”, “강상풍월” 등의 단가를 ‘오케’레코드사에서 취입하였다. 림방울은 전남 광산군 송정읍에서 출생하였고 명창 공창식을 사사하였다. 1920년대 말 또는 1930년대 초 ‘빅타레코드’와 ‘오케레코드’사에서 창극 “춘향전”을 취입하였고, 천구성과 수리성이 잘 배합된 시원스런 소리의 소유자라고 하고 있다.

박록주는 1904년경 경북 선산군에서 출생하였고 사망연도는 알 수 없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송만갑과 정정렬로부터 소리를 사사하였다. 1930년대초 정정렬, 림방울, 리화중선, 김소희와 함께 ‘빅타레코드’에서 “흥부전”, “춘향전”을 취입하였다. 박록주와 관련된 남한의 자료를 보면 1905~1979이 생몰연대이고 1965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었다.¹¹⁾ 공기남은 1917년 전남 화순군 도곡면에서 출생하였고 박동실에게 사사하였다. 광복 후에는 함화진이 이끄는 “국악원”에서 강사로 활동하였고 1950년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1951년에서 1962년까지 국립민족예술단 창극 가수로 활동하였다. 1960년 공훈배우가 되었으며 “한일의 싸움터를 찾아서”를 작곡하고 출연하였다. 림소향은 1918년 경북 김천에서 출생하여 1930년대 중엽 정정렬에게 사사하였다. 1940년경 “한양창극단”과 “조선창극단”에서 활동하였고 1950년 북한으로 이주하여 국립민족예술극장에서 배우로 활동하였다. 1952년 공훈배우가 되어 창극에 출현하였고 전라도민요를 부르는데 특기가 있었다.

5.3. 이름난 민족음악연주가

『민요삼천리2』의 이름난 민족음악연주자로 남성연주가 4명, 여성연주가 3명 총 7명의 민족연주자를 소개하고 있다. 한성준은 1873년경 충남 홍성에서 출생하였고 명고수, 명창인 외할아버지로 부터 장단을 배워 17세에는 명고수로 이름을 날리었다. 무용에도 조예가 깊었던 한성준은 여러 무용가를 기러냈으며, 최승희에게도 장단과 무용을 가르쳐주었다. 한성준의 사망연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으나, 남한의 자료에 의하면 1874~1941년으로 되어있다.

안기옥은 1894년 전남 라주군 남평면에서 출생하였고 증조부, 조부,

11) 장사훈, 위의 책, 305쪽.

부친 등 가족이 명창, 명고수, 명인의 가족에서 자라났으며, 안기옥은 8세부터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1914년 김창조에게 가야금산조를 사사하였고 1930년대 창극에 출연하고 연주도 하였다. 1946년 북한으로 이주하여 인민배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민족음악연구소 소장 겸 평양음악대학 민족음악학부 기악강좌장, 세계청년학생축전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창작품으로는 가요 “불멸의 금강”, 합창곡 “수송대의 노래”, 기악곡 “새봄”, “새로운 결의” 등이 있다. 최석봉은 1940년 평양에서 출생하였고 1957년 평양음악대학에 입학하여 안기옥으로부터 아쟁을 사사하였다. 민족음악교육자이며 학자였던 최석봉은 “아쟁교측본”, “대해금교측본”, “저해금교측본”, “장고교측본”, “장고연주법” 등의 교측본과 연습곡집, 기초훈련곡집 등 집필하였다.

김용실은 1940년 경기도 파주군에서 출생하였고 1957년경에 평양음악대학에서 거문고를 배웠다. 창작곡으로는 거문고독주곡 “출강”, “넘원”, “환희”, “천리마전진” 등이 있으며 “박연폭포변주곡”, “홍타령변주곡”, “안땅” 등 여러 독주곡과 민족기악중주곡, 가요와 무용곡들을 창작하였다. 현재는 조선민족음악무용연구소에서 작곡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김길환은 1936년 자강도 만포에서 출생하였고 1960년 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하였다. 졸업 후 현재까지 음악교육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창작곡으로는 “가야금곡집1,2”, “가야금산조해설” 등이 있다. 리자영은 1949년 자강도 회천시에서 출생하였고 1967년 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하였다. 정남희로부터 가야금산조를 사사하였으며 만수대예술단에서 가야금연주자로 활동하였다. 창작곡으로는 가야금독주곡 “초소의 봄”, “바다의 노래” 등이 있다. 1979년 공훈배우가 되었고 교재용으로 “흥겨운 농장별”, “봄노래”, “우리의 동해는 좋기도 하지”, “만경대의 노래” 등을 창작하였다. 안화렬은 1957년 평양에서 출생하였고 7살 때 할아버지인 안기

옥으로부터 가야금연주법을 사사하였다. 12줄로 된 가야금연주법과 개량된 가야금연주법을 배합하는 능력이 있는 연주가이며 민족음악연구사로, 현재는 평양음악무용대학 무용학부 반주강좌에서 근무하고 있다.

5.4. 민족음악의 공헌자들

『민요삼천리2』의 민족음악의 공헌자들로 총 4명을 소개하고 있다. 박형섭은 1939년 강원도 천내면 신암리에서 출생하였고 1963년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한 후 교원, 강좌장, 학부장을 거쳐 음악무용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저작물로는 “단소교측본”, “단소곡집”4권, “단소련습곡집”4권, 엮모리장단으로 된 “농장의 아침”, “고향마을”, 단소협주곡 “출향” 등을 작곡하였다. 또한 “단소연주법”, “조선민요연구리론”, “조선민족악기총서”10권, “조선민족음악전집”34권을 책임 출판하였다. 현재 조선민족음악무용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도지방의 설화극형식의 “배맹이굿”을 가창으로 보존하면서 민속민요와 민속무용을 발굴 정리하고 있다.

리차운은 1934년 함경남도 정평군에서 출생하였고 전후에 평양음악대학에 입학하여 졸업 후 평양음악대학 교무부장을 거쳐 음악대학 음악연구소 소장 겸 과학연구 부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조선음악사”, “광복 후 조선음악” 집필에 참여하였다. 단행본으로는 “주체 음악예술의 혁명전통” 등이 있다.

한시형은 1925년 평양에서 출생하였고 1945년 “보통강개수공사의 노래”, 1948년경에는 관현악곡 “조선민요조곡”, 이밖에도 “꽃피는 마을”, “우리네 일터”, “가야금산조”를 채보 정리하였고 중앙교육원 음악교원을 거쳐 최승희무용연구소 음악교원, 연주가, 작곡가로 활동하였다. 특히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음악들을 발굴 정리하였다. 고구려음악 51편, 발해

음악 60편, 백제음악 7편, 가야음악 5편, 신라음악 2편, 고구려·백제 탈춤곡 21편, 고려시기음악 69편 등을 정리하였다. 차승진은 1937년 남포시 와우도 구역에서 출생하였고 1962년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하고 1966년 작곡 학부를 졸업하였다. 민족음악채보정리와 발굴사업에 기여하였으며 저서로는 “조선민요창법기교”, “민요연구자료집” 8권, “조선민속무용자료집”, “민요창법해설” 1, 2권, “계몽기 가요 600곡집” 등이 있다.

5.5. 민요와 현대 조선민족무용

『민요삼천리2』의 민요와 현대조선민족무용에서 총 4명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최승희는 1911년 경기도 서울에서 출생하였고 16살 때 조선의 민족무용을 발전시킬 결심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무용 상식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귀국 후 민족 무용현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를 찾아다니며 민간무용, 민속무용, 기생춤, 탈춤, 승무, 사냥춤, 곰춤 등 수 많은 춤가락을 찾아 놓았다. 인민배우였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김일성장군께 드리는 헌무”, “장단과 춤”, “장고춤”, “조선의 어머니”, “녀성유격대원”, “사도성의 이야기” 등 많은 무용작품들을 창작하였고, 이밖에도 “초립동”, “옹헤야”, “부채춤” 등을 비롯해 “조선민족무용기본” 등이 저서가 있다. 최승일은 1901년 서울에서 출생하였고 배재고보를 졸업한 후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였다. 여동생인 최승희를 조선의 무용가로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카프에서 활동하던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단편소설 “바둑이”, “콩나물죽”, “봉희”, “거리의 녀인”, 희곡 “선술집”, “떠나는 사람들”, 평론 “문단유감” 등의 작품이 있다.

장추화는 1921년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에서 출생하였고 본명은 장선애이다. 1936년경 “이시이바꾸무용연구소”를 거쳐 “동방무용연구소”에서 연구생으로 근무하였다. 1950년 인민군에 입대하였고 “인민군대와

함께”, “승리의 북소리 들린다” 등의 창작무용을 제작하였다. 전후에 조선무용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평양 국립무용예술극장 안무가로 활동하였고 지방 무용 강화를 위해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북도예술단의 안무가로 활동하였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춘향전”, “심청전”, “리순신 장군”, “바라춤”, “무고”, “꼭두각시” 등 여러 작품들을 제작하였다.

최호섭은 1938년 서울시 보광동에서 출생하였고 1948년 누이인 작가 최로사와 북한으로 이주하였다. 최승희무용연구소를 졸업하고 최승희 안무 작품에 출연하였으며 여러 극장 안무가로 활동하면서 군무 “락동강 할아버지”, “항쟁의 어머니”, 무용극 “불타는 강변” 등을 창작하였다. 특히 어린이 아동무용 작품을 많이 창작하였으며 독무 “공차기 신나요”, 쌍무 “타구선수 될래요”, 3인무 “손북춤”, “페랭이 춤” 등의 아동 무용작품을 창작하였다. 현재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안무가를 거쳐 만수대에 술단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다.

5.6. 민간의 명고수와 명무가들

『민요삼천리2』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간의 명고수와 명무가들은 총 5명을 소개하고 있다. 량상호는 1925년 전북 부안에서 출생하였고 명고수로 이름난 할아버지에게서 장단과 춤을 사사하였다. 16살 되던 해에 일제의 강제징집에 걸려 “개척단”에 끌려가 건설과 농업노동을 하였고 광복 후 예술선전대원으로 활동하고 1947년 조선인민군협주단으로 입대하여 무용배우와 고수로 많은 작품에 출연하였다. 1950년 연변가무단 안무가, 1965년 평안북도예술단 안무가로 활동하였다. 현재 평안북도 협동농장과 공장, 기업소에서 조선음악장단을 교육하고 있다. 김현영은 1930년 평양에서 출생하였고 오봉기, 오봉은, 오봉필(오학선)에게 민요와 장단을 배우면서 오덕성이라는 예명을 가지기도 하였다. 광복 후 고전예술극

장과 철도성예술극장에서 고수로 근무하였으며, 장고, 북, 팽과리, 징 등 타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명고수로 널리 알려 졌다. 현재는 농악 후배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량상호와 김현영은 남한에서 판소리 혹은 기악연주 시 반주해주는 개념의 고수가 아니라 농악의 사물을 연주하는 연희자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송용화 노인은 80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장단을 치며 노래하고 무용에 능한 노인으로 “모란봉의 명배우”라는 별명이 있다. 전후시기에는 근로자예술경연에서 민요 독창으로 1등을 하였고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가는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를 받들어 모란봉과 대성산유원지 등에서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김원서 노인은 80세 고령임에도 명절이나 휴식날 모란봉과 대성산을 찾아 가창과 가무활동을 벌여 “모란봉 배우”라는 별명이 붙었다. 평양에서 성장한 그녀는 권변에서 흘러나오는 민요들을 통해 노래를 배웠고 서도민요, 관북민요, 경기도민요 등을 운치있게 부른다고 한다. 전후 복구시절에는 가창대와 예술소조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태정란 노인 1936년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출생하였고 평양에서 성장하였다. 최승희 무용연구소를 졸업하고 국립무용예술극장에서 근무하였고 최승희 무용작품에 출연 하였으며, 민속무용 “돈돌라리”, “홀라리”, “농악무” 등에도 출연하였다. 특히 “장단과 춤”은 그의 독무 중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었다고 한다.

6. [부록] 부분 악보 분석

『민요삼천리2』의 부록부분은 악보와 사진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악보자료는 각 지역 민요 총 41곡의 민요를 소개하고 있다. 이들 중

남한에서 연주되고 있는 민요들은 “아리랑”, “고성아리랑”, “긴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영천아리랑”, “경상도아리랑”, “수심가1·2·3”, “여음수심가”, “양산도1·2”, “놀랑”, “뒤산타령”, “경발림”, “풍년가”, “군밤타령”, “매화타령1·2·3”, “닐리리아1·2”, “긴농부가”, “자진농부가”, “물레타령1·2” 등 총 27곡이다.

그 외의 민요들은 북한 지역에서 연주되어지는 민요들이라 할 수 있다. “서도아리랑”, “단천아리랑”, “돈돌라리”, “함경도 농부가”, “삼삼이 노래”, “의병춤”, “뽕타령”, “타령1·2”, “밤엿타령”, “황해도산타령”, “화편”, “점심밥소리”, “비타령” 등 총 14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북한에서 연주되고 있는 민요들의 음악적 특징은 “서도아리랑”과 “단천아리랑”의 경우 G장조 세마치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쾌한 분위기의 노래이다. “돈돌라리”는 G장조 덩덕궁이(자진모리) 장단으로 빠르고 경쾌한 느낌의 노래이다. “함경도 농부가”는 C장조 세마치장단으로 흥겨운 느낌의 노래이다. “삼삼이 노래”는 G장조 반굿거리 장단으로 밝고 흥겨운 느낌의 노래이다. “의병춤”은 C장조 빠른 중중모리 장단으로 흥겨운 느낌의 노래이다.

“타령1·2”는 C장조 굿거리 장단으로 흥겹고 덩실덩실거리는 느낌의 노래이다. “뽕타령”은 A장조 반굿거리 장단으로 능청거리고 씩씩한 느낌의 노래이다. “밤엿타령”은 C장조 중모리 빠르기 of 느리고 처량한 느낌의 노래이다. “황해도산타령”은 Bb장조의 느린 세마치장단의 느리고 유창하게 부르는 느낌의 노래이다. “화편”은 C장조 편장단으로 아름답게 부르는 노래로 남한의 여창가곡 편수대엽이나 평시조 ‘모란은 화중왕이요’와 동일한 곡으로 판단된다. “점심밥소리”는 a단조 굿거리장단으로 애조된 성음으로 흥얼거리듯 하는 느낌의 노래이다. “비타령”은 a단조 굿거리장단으로 능청거리고 흥겨운 느낌의 노래이다.

7. 결론

2003년 평양출판사에서 출판된 최창호 저 『민요삼천리2』의 구성체계와 내용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창호 저 『민요삼천리2』의 구성체계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영남지방, 제주도 지역의 대표적인 민요들의 유래와 사설내용을 총 5장에 걸쳐서 분석하고 있으며, 저자후기와 특집편으로 민요 명창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민족음악에 공헌이 있는 인물들의 활동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부록악보에는 남·북한에서 사용하는 민요 41곡의 악보를 수록하고 있다.

둘째, 노랫가락, 창부타령의 유래를 가곡 또는 시조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남한의 견해와 상이한 부분이 있다. 또한 판소리의 본향에 대한 견해, 영남 민요 중 영천아리랑과 옹혜야의 사설의 어원과 중요도에서 남한의 견해와 상이한 부분 등이 있었다. 신민요의 개념정의와 시초에 대한 남·북한의 견해차가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특집부분에서 서도민요 명창 16명, 남도민요 명창 10명, 민족음악가와 공헌자 10명, 민족무용가 4명, 민간부분 연주자 5명 등을 소개하고 있어 이들의 내력과 활동상황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남한에 소개되지 않은 명인들과 이론가들의 활동연혁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부록악보에서 오선보로 제시하고 있는 총 41곡 중 27곡은 남한에서 연행되고 있는 민요들이고, 14곡은 남한에서는 처음 접하는 민요 곡들로 북한 민요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투고연장일	: 2018년 08월 19일
논문투고일	: 2018년 07월 30일
심사개시일	: 2018년 08월 26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9월 08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9월 10일

■ 참고문헌

- 김해숙·백대웅·최태현(1995), 『전통음악개론』, 도서출판어울림.
송방송(2012), 『한겨레음악대사전 상·하』, 보고사.
장사훈(1984), 『국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_____(1986), 『중보한국음악사』, 세광음악출판사.
최창호(2003), 『민요삼천리 2』, 평양출판사.
황용주(1992), 『한국경서도창악대계 상·하』, 도서출판 원일인쇄.
황준연·신대철·권도희·성기련(2002), 『북한의 전통음악』, 서울대학교 출판부.

■ 국문요약

북한판 『민요삼천리 2』의 구성체계와 내용에 관한 고찰

이형환 · 전성희

2003년 평양출판사에서 출판된 최창호 저 『민요삼천리2』의 구성체계와 내용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요삼천리2』의 구성체계는 우리나라 민요권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표적인 민요들의 유래와 사설내용을 총 5장에 걸쳐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저자후기와 특집편, 남·북한 민요 41곡을 소개한 부록악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노랫가락, 창부타령의 유래, 판소리 본향, 옹헤야 등 사설의 유래에 관해 남한과의 견해차이가 있고, 특히 신민요에 대한 개념정의와 시초에 관한 견해차가 있어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특집부분에서 서도민요 명창, 민족음악가와 공헌자 외 민족예술분야 인물 총 45명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 저서가 남한에 소개되지 않은 인물들의 활동상황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부록악보에서 오선보로 제시하고 있는 총 41곡 중 14곡은 남한에서는 처음 접하는 민요곡들로 북한 민요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핵심어 : 신민요, 민족예술, 북한민요, 서도민요, 민족음악가, 민족무용

■ 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North Korean
version of 『Folk song of the whole land of Korea 2』

Lee, Hyung-hwan* · Jeon, Sung-hee**

The result obtained through the structure and contents analysis of Choi, Chang-Ho's 『Folk song of the whole land of Korea 2』 published in Pyongyang Publishing Co. in 2003 is as follows. First, the structure of 『Folk song of the whole land of Korea 2』 analyzes the origin and editorial contents of the representative folk songs of each region based on the folk songs of Korea in total five chapters. It also consists of a review of the author and a special section, and an accompanying sheet music section, which introduces 41 Southern and North Korean folk songs. Secondly, there was a difference of opinion with South Korea about the origin of the editorials such as singing, the origin of ‘Changbu Taryeong’, and ‘Pansori’, and ‘Ongheya’. In particular, a further study was needed because of differences of views with South Korea on the definition of concept and the beginning about new folk. Thirdly, the special section introduces a total of 45 figures, folk songs of the western provinces of Korea, ethnic musicians, artists, and ethnic art, too.

* Chung-Ang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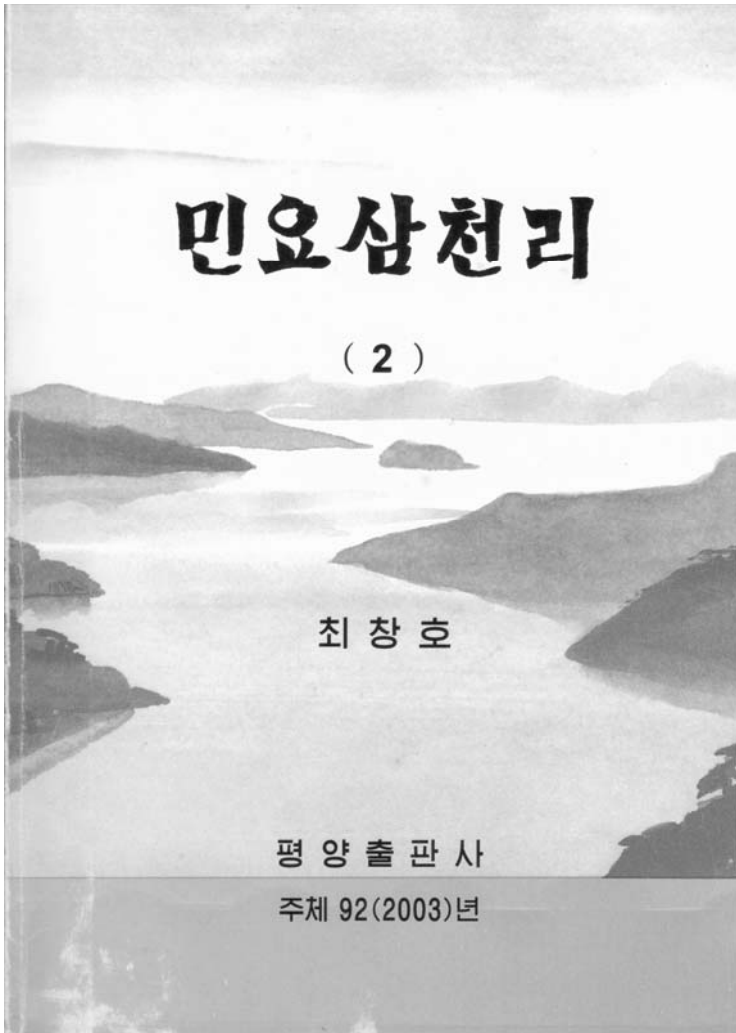
** Chung-Ang University

In this respect, It can be seen that this book is a valuable resource to understand the activities of people who are not introduced to the South. Fourth, 14 ones among 41 songs presented by the music in the appendix "O Sun-bo" are the folk songs to be firstly introduced in the South and can be expected to be used as important material for the study of North Korean folk songs.

Key-words : New folk song, Ethnic art, North Korean folk song, Folk song of the western provinces of Korea, Folk musician, Ethnic dance

■ 부록

〈부록 1〉 『민요삼천리2』 표지



〈부록 2-1〉 『민요삼천리』 차례

차 례

1. 경기도의 민요들을 더듬어	1
《노래 가락》과 《창부(倡夫)	
타령(광대 가)》	4
《강타령》과 《경 복궁타령》	22
《매 화타령》과 《닐리리야》	28
《이 팔청춘가》와 《사발가》	34
2. 충청도민요에 대한 소감	41
3. 전라도민요들을 더듬어	51
남원땅의 옛 노래	53
전라도의 판소리	70
가단가요의 하나인 《새 타령》	114
호남지방의 토속민요	124
4. 경남지방의 뿌리깊은 민요	149
《메 나리》와 《밀 양아리랑》	153

〈부록 2-2〉 『민요삼천리』 차례

《영천아리랑》과 《패지나 칭칭 나네》	160
《옹헤야》와 《정애요》	168
5. 제주도의 옛 노래들을 더듬어	173
《민요삼천리》 2권을 마치면서	184
〔특 집〕	189
서도민요의 명창들	189
남도민요의 명창들	221
이름난 민족음악연주가들	235
민족음악의 공헌자들	247
민요와 현대조선민족무용	257
민간의 명고수와 명무가들	267
〔부 록〕	275
악 보	275
〔사진소개〕	347

〈부록 3〉 민요악보 차례

악 보 차 례

아리랑277	경발림314
서도아리랑279	타령 (1)320
단천아리랑280	타령 (2)321
고성아리랑281	뽕타령322
긴 아리랑282	밤엇타령323
진도아리랑284	황해도산타령324
밀양아리랑286	풍년가326
영천아리랑287	군밤타령327
경상도아리랑288	화편329
돈돌라리290	매화타령 (1)331
함경도농부가292	매화타령 (2)332
삼삼이노래294	매화타령 (3)333
의병춤295	닐리리야(1)335
수심가(1)296	닐리리야(2)337
수심가(2)297	점심밥소리338
수심가(3)298	긴 농부가339
워음수심가299	찾은 농부가341
양산도 (1)301	물레타령 (1)342
양산도 (2)303	물레타령 (2)343
놀랑305	비타령346
뒤산타령309	

〈부록 4〉 사진자료



꽃기미장단과 흥겨운 출가타

360



민속적정서가 흥미 넘치는 삼고장단과
가야금연주

361



풍년의 풍소소리는 미미록 머물린다.

362



모란봉정년풍원에는 거문고
연주기도 찾아 온다.



재남고종주
《당산도》

363